

제3회 사하구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성황리에 열려



제3회 사하구 평생학습 성과공유회가 10월 27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렸다. 홍보, 체험, 전시,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사하구는 SNS 해시태그달기, 주민 요구조사와 홍보물 배부로 평생학습을 알렸다. 평생학습동아리를 비롯한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등 평생학습기관은 다양한 체험을 준비하였다. 주민들은 체험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며 호응하였다. 특히 4개 동아리가 참여한 '다시 보는 다대진성' 공연은 다대포의 자랑스런 역사를 재연해 큰 박수를 받았다. 날로 풍성해지는 평생학습을 느끼는 날이었다. (사진① 평생학습 플래시몹 구민홍보단 공연, 사진② 다시 보는 다대진성 공연, 사진③ 행사장 안내, 사진④ 조향체험)

손현아 평생학습 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요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 수료식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지난 12월 13일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 수료식을 열었다. 수강생은 처음 입어 보는 졸업가운에 씩스러워하기도 했고 어느 수강생은 몇 년 만에 써보는 사각모에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지난 6월에는 1기 수강생 46명이 수료했고 이번은 2기 수강생으로 49명이 수료한다.

여성들의 리더십 강화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다양한 강좌로 이루어진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는 접수인원이 금세 마감되는 인기가 높은 강좌이다. 수료생 김윤희(41세·구평동) 씨는 "과정을 마쳐서 아쉽고 내년에는 고급반이 개설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발표했다. 1기 수강생은 수료 후 이주여성에게 한국음식을 통해 정착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며 회원들간 친목도 도모하고 있다. 2기 회장 노혜희(63세·괴정동) 씨는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서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1기 활동을 본보기로 2기도 열심히 지역사회 나눔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료하는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 수강생이 행복한 여성 리더로서 지역공동체를 위해 멋진 활약을 할 것을 기대한다.

안옥순 평생학습 구민기자
an5035@hanmail.net

겨울특강으로 방학숙제 걱정 끝!

사하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1월 2일부터 개강

사하구 평생학습관이 새해 첫 강좌로 겨울특강을 준비했다. 첫 강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직업상담사 2급 국가자격과정 필기대비반과 초등학교 대상인 삼국시대 역사 팝업 여행이다. 이번 겨울특강은 방학을 맞은 초등학교와 새해를 배움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체 10개 프로그램 중 4개는 성인 대상이고 6개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진행한다.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인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원리를 활용하는 '삼국시대 역사 팝업여행'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개념을 배우고 실생활 속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내손으로 만드는 AR-VR 과학교실'은 아이들에게 과학과 역사에 흥미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신문인 '내고장 사하' 구보를 활용하여 우리 가족만의 신문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 추억을 만드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새학기 준비물 만들기, 은박지그림, 보드게임으로 즐기는 용돈경제교실이 있다.

성인대상 프로그램 중 눈길을 끄는 강좌는 'IoT스마트팜! 수경재배 가꾸기' 프로그램

이다.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식물을 키우는 강좌이다. 식물에게 필요한 빛과 수분, 온도 등 모든 상태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빠르고 편리하게 식물을 돌볼 수 있어 참 이로운 강좌이다.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취·창업 준비하는 바리스타 자격 과정이 있다. 올 하반기에 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인기강좌를 이번 겨울특강에는 직장인 대상으로 저녁시간에 운영한다. 외부 바리스타 학원에서 진행하며 충분한 실기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림아트지도사 과정은 수료 후 사하구내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주민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겨울특강은 지역봉사와 사회진출을 위한 물꼬를 터주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관심있는 주민은 많이 참가하길 바란다. 신청은 이달 7일부터 수강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www.saha.go.kr/edu>)를 참고하기 바란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220-4117~8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사람들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다녀와서

축제의 계절 가을에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10월 25일 ~ 27일 벅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하였다. '평생학습, 사람을 빛나게 하다'라는 주제로 전국 17개 광역시·도(160개 평생학습도시)와 대학, 평생교육기관, 동아리 310여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올해는 벅스코내 행사 외에도 특별히 외부박람회를 감천문화마을을 비롯하여 5개소에서 동시 개최하였다.

첫날 개막식과 함께 올해의 평생학습인에 대한 시상과 부산 수영구를 비롯해 7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평생학습도시 동관수여식이 있었다. 박람회장은 야외부스부터 시작하여 시화전을 전시한 로비를 지나 전시장에 들어서면 부산광역시 체험프로그램장이 펼쳐졌다. 날짜별 시간별로 다르게 각 자치구가 준비한 체험장에는 매일 줄지어 기다리는 방문객들과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을



상징하는 '감(甘)'자 모양 팬던트와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시장은 체험존, 지혜존, 나눔존, 소통존 등 7개 존으로 준비해 방문객들의 목적과 취향에 따라 찾아볼 수 있도록 애쓴 모습이 보였다.

이번 박람회에서 특별히 기획한 외부박람회를 보기 위해 외부박람회 운행버스에 승차해 벅스코에서 감천문화마을로 향했다. 운행버스는 감천문화마을과 아미

동 비석마을-보수동 책방골목-초량 이바구길-영화의 전당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운행하였다. 관광해설사가 동승하여 각 장소에 대한 해설을 하였다.

감천문화마을입구엔 오전 시간인데도 많은 방문객들로 붐볐다. 안내센터에서 사하구청 직원들의 따뜻한 환영과 함께 지도와 체험쿠폰을 받아 들고 일러준 코스를 따라 자유롭게 투어를 시작하였다.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 사이로 작은박물관이 나왔다. 마을의 생성과 조성에 대한 설명을 사진과 함께 볼 수 있는 마을역사관 이었다. 작은박물관을 나와 골목입구에 있는 아기자기 체험장에서 '인증샷 만들기'도 하고 하늘마루에서는 '석고방향제 만들기'를 할 수 있었다. 영화의 전당을 마지막으로 외부박람회를 모두 마치니 알찬 프로그램 덕분에 저녁이 되었다.

공자는 논어의 첫머리에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였듯이 평생 배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시민이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유의 장을 마련해 즐거운 화합의 축제가 되는 체험형 평생학습박람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박강균 평생학습 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

한국음식 배우기 참~즐거워요!

결혼이주여성 요리교실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정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하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4번째로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하구는 초기입국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교실을 열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결혼이주여성 12명과 자원봉사자로 나선 제1기 고우니행복여성아카데미 수료생들은 평생학습관 인근 요리학원에서 6회 차에 걸친 요리수업에 참여했다. 메뉴는 멸치볶음, 돈육 두루치기, 비빔밥나물, 해조류나물, 겉절이, 김밥이었다. 한식 밥상에 꼭 필요한 음식들이었다. 수강생들은 굴소스를 보고 돈가스 소스 아니냐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가 하면, 물엿 대신에 매실 액기스를 넣어도 되는지 강사에게 손을 들고 물어보기도 했다. 즐거운 분위기 속

에 자유롭고 적극적인 자세로 자원봉사자들과 1:1 멘토링으로 요리하는 모습은 한국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습 그대로였다.

한국으로 와서 이수연으로 개명한 풍티엣(25세·다대동) 씨는 시어머니께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밥을 배워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툇이나 파래는 베트남에서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식재료라고 하였다. "저번에 반찬만 들어서 가져갔더니 시어머니가 맛있다고 했어요." 라고 하며 이번에 배운 툇나물 두부무침과 파래무침도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께 맛보여 드릴 일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수줍게 웃었다.

결혼이주여성 요리교실은 신평1동 마을공동체와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수강자들이 학습성과물(반찬)을 선정된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는 활동도 하였다. 한국 음식을 배워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 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관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학습자, 마을의 수혜대상자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끈으로 묶여 조화를 이룬 모습이 아름다웠다.

김미영 평생학습 구민기자
ivy1201@hanmail.net

사하 다행복 어울림한마당 체험기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교육축제

사하 다행복 어울림한마당이 11월 13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행사장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들로 북적였다. 동아리가 제작한 작품들과 마을공동체가 고정마을을 표현한 작품이 1층 로비에 전시되었다.

이번 어울림 한마당은 공연 행사와 사하 다행복 교육 콘텐츠 홍보가 되었다. 19개의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공연은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오케스트라, 합창, 댄스, 사물놀이 등 각고 닦은 실력을 무대에서 마음껏 뽐냈다. 서천초등학교 학부모 댄스공연은 화려한 동작과 멋진 실력으로 아이돌가수의 무대를 보는 것 같았다. 관객이 하나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내년부터 초·중학교에 찾아가는 창의수업으로 진행할 체험부스가 2층에 꾸며졌다. 팬시우드 직업아트체험, 격정인형 만들기, 집중력을 높여주는 정리수납 등 10개의 창의수업 체험부스

였다. 공연을 마치고 온 학생들은 직접 체험을 하며 재미있어 했다. 씨앗이 생명의 기원으로 몸에 차면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마을교사의 설명에 학생들은 집중하며 자신의 씨앗팔찌를 만들었다. 색 심리에 관심을 가져 공부하게 되었다는 마을교사는 체험 중에 예전 유치원교사 시절 가르친 학생을 만나 사진도 찍고 학교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새로운 추억도 쌓았다. 한지비단신 만들기는 학부모에게 더욱 인기가 좋았다. 우리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알록달록 전통신을 만들었다.



사하 다행복 어울림한마당은 학생, 학부모, 교사, 마을교육공동체가 예술적 경험을 나누며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 찾아가는 창의수업 활동들이 내년에 학교에 잘 정착되어 더 많은 학생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아름다운 그대

“아이들이 놀면서 배우면 좋겠어요”

교구놀이 강사 이예진 씨를 만나다



사하구에는 평생학습 관련 동아리가 많다. 그 중에서 '탈무드 Think & Solve 사하 ONE'은 활발한 활동과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 여러 번 우수 동아리로 뽑혔다. 그 중심에 회장 이예진(39세·신평동) 씨가 있다.

이예진 씨는 동아리를 통해 지역 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재능기부를 하면서 강사로도 입지를 굳히고 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유능한 강사라고 말하지 않는다. 탈무드 창의 영재 지도사 과정을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최정희(42세·감천동) 씨는 “그녀는 성실한 생활인이기도 하지만 가르칠 때는 학습 내용과 방법에 경계가 없고 순간 대처능력이 뛰어나 수강생들의 관심과 집중력을 높이는 카멜레온 같은 강사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예진 씨는 학원의 시간제 국어 강사였다. 그녀는 중앙 도서관에서 실버놀이 지도사 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사하구가 개설한 탈무드 창의 영재 지도사 과정을 공부하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꼬리



에 꼬리를 문 평생학습 수혜자가 되었다. 어린 두 딸과 잘 놀기 위해 교구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교구놀이 강사가 되었다. 그녀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탈무드 창의 영재 지도사를 비롯하여 30개 정도가 된다. 그 많은 자격증이 결국 놀이로 통합이 되는 걸 보면 그녀는 자신이 놀이교육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다. 지금은 새로운 것을 계속 접하면서 코

딩과 메이커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그녀는 최근에 개인의 활동에 제약을 느끼고 분야가 다른 강사들과 교육 협동조합을 꾸렸다. 협동조합 회원들은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고 격려하며 협업한다. 공예활동, 코딩작업, 보드게임, 스토리작업을 내용으로 학교캠프를 열기도 했다.

이예진 씨는 지난 11월 22일 사하구가 양성한 마을교사로서 당리초등학교

6학년과 시범교육을 했다. 수업은 코딩과 알고리즘, 질교놀이 중심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코딩과 알고리즘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았고 재미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예진 씨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배우며 행복해 할 때 나도 행복하다.”라며 아이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학습멘토로 2-3개월에 걸친 단기적 특강을 하면서 교구놀이와 인성교육을 접목한 결과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좋아졌을 때 만족감이 컸다고 말했다. 두 딸이 활동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보람 있다고 환하게 웃었다.

이예진 씨는 탈무드 강사를 비롯하여 학부부 서포터즈, 진로직업지도사, 마을교사 등 여러 이름을 가졌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즐겁게 놀면서 배우며 가르치는 강사다. 다음엔 어떤 놀이로 수업을 이끌어낼지 궁금해진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성인문해 수강생 문화를 만나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성인문해 수강생에게 특별한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성인문해 수강생 80여명은 지난 11월 사하구 하단동 한 극장에서 영화 ‘동네사람들’을 보았다. 참여자들은 “아이구~ 우짜꼬~ 쫓쫓~” 하며 영화에 빠져들었다. 김애순(79세·신평동) 씨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학생이 정말 용감했다며 우리 사회도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김금이(76세·하단) 씨는 낱말 익히기에 부담이 컸는데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조금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화체험으로 11월 14일에는 도자기공예로 접시를 만들었다. 흙을 만지며 처음 접시를 만드는 수강생들은 조심스럽고 진지했다. 각자 만든 접시바닥에 이름을 새겨 넣고 완성이 되자 수강생 얼굴에는 기쁨이 묻어났다.

바쁜 삶을 살아 온 성인문해 수강생은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영화 관람과 도자기공예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과 220-4805

김필본 평생학습 구민기자
shjpbun@naver.com

성인문해반의 끝없는 도전

김정순 어르신 세종대왕상 수상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성인문해 골든벨과 시화전이 11월 29일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성인문해를 담당하는 11개 기관에서 한글을 배우는 어르신이 도전 골든벨에 참여했고 시화전도 열렸다. 김태석 사하구청장은 일본의 할머니 시인 ‘시바타 도요’를 소개하며 축사를 했다. 아들의 권유로 아흔이 넘어 시집을 낸 그녀를 예로들어 늦은 나이이지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성인문해반 어르신들을 격려해 주었다.

한글교실을 다니고부터 병원을 혼자 갈 수 있게 되었고 은행도 이제 무섭지 않다는 웃음이 시화전 곳곳에서 보였다. 보고 싶은 손주에게 카톡을 보내게 되었다는 글은 특별하게 와닿았다. 배우고 싶었지만 여자로 태어나서 못 배웠고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다는 원망 섞인 글도 보였다. 한글을 배우고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솔직하게 시로 담아낸 것이다. 글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일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불편함과 수치심을 안겨줬을 것이라는 생각을 시화전으로 알 수 있었다. 어르신들의 시화전은 보는 이들에게 더욱 겸손할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한편 대강당 중앙에는 성인문해기관을 대표해 65명의 어르신이 성인문해 골든벨에 도전했다. OX문제부터 객관식 문제, 맞춤법이 어려운 주관식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전자제품을 켜는 버튼은 온일까요 오프일까요’ 같이 생활에 직접적인 활용이 되는 문제도 있었다. 주관식 답이 ‘떡볶이’에서 탈락자가 많이 나왔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탈락자들은 정답을 늦게 적어서 탈락하고 글자가 틀려서 탈락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최고 득점자에게 주는 세종대왕상은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김정순(70세·하단동) 어르신이 받게 되었다. 훈민정음상은 마지막까지 남은 4명에게 돌아갔다.

성인문해골든벨은 수상을 한 도전자와 참가한 도전자 모두가 즐겁고 의미있는 행사였다. 각 기관의 열띤 응원의 목소리와 사회자의 재치있는 입담도 행사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했다. 어르신들의 열정과 노력이 성인문해 골든벨과 시화전을 빛나게 했다. ‘시바타 도요’ 할머니처럼 성인문해반 어르신들의 끝없는 도전을 응원한다.

김정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걷기만 하면 누구나 건강할 수 있어

걷기운동 동아리 '파워워킹교실'을 찾아서

‘파워워킹교실’은 말 그대로 걷기운동 동아리이다. 건강해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걷는다. 모임 때마다 일정한 장소를 정하고, 걷는 시간은 만보를 기준으로 1시간 30분씩 진행된다. 회원들은 대부분 사하구 생활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 중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도 있다. 밴드를 개설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새로운 회원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쾌청한 가을날인 11월 9일,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회원들이 다대포 낙조분수대 앞으로 모여들었다. 10시 정각이 되자 19명의 회원들은 스트레칭으로 몸 풀기 운동을 시작했다. 몸 풀기 운동이 끝나고 류영무(71) 회장이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오늘 걷게 될 일정을 소개했다. 낙조분수대를 출발해 갈매길의 일부인 물운대를 한 바퀴 돌아 나오는 코스였다. 회원들은 곧바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물운대로 향했다.

류영무 회장은 “고령화시대에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걸어야 한다.”며 ‘파워워킹교실’을 열게 된 계기에 대해 말했다.

막내회원인 박병선(48) 씨는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다. 그는 “몸이 불편하다보니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 몸무게가 85키로 이상 나갔다. 게다가 아내가 죽고부터는 사람을 기피하는 증세까지 있었다. 파워워킹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하면서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다.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동안 몸무게가 15키로나 빠지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어머니들이 잘 챙겨주어서 사람을 기피하는 증세도 사라졌다.”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수연(68) 씨는 헬스장에 다녔는데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걷기 교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걷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기관지가 안 좋아 고생했는데 걷기운동을 하면서 동안 자신도



모르게 기관지가 좋아졌다. 걷는 것이 이렇게 좋은 운동인 줄 몰랐으며 활짝 웃었다.

인류가 걷기 시작한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직립보행에서부터일 것이다. 걷기는 손살같이 달려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운동이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다. ‘파워워킹교실’이 사하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류영무 회장의 말처럼 주민들이 걷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희망한다.

천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tagore0308@hanmail.net

평생학습 문턱을 낮추다

사하구 평생학습 맛보기 특강 인기

“쿵쿵쿵”
“톡톡톡”

이 소리는 사하구 평생학습관 교실에서 나는 망치 두드리는 소리이다. 연말을 맞아 12월 3일 시즌 특강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액자 만들기 수업이 열렸다. 크리스마스 트리 액자를 ‘스트링 아트’ 기법으로 만드는 수업이다. 디자인한 도안에 작은 못을 박고 실이나 끈을 이용해서 작품을 완성하였다. 스트링 아트는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처음 열리는 강좌이다.

평생학습 맛보기 특강은 평생학습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회성 강좌이다. 이번 강좌는 평생학습이 어떤 것인지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수강생은 기획 의도처럼 신규 학습자가 많았다. 수능 시기에 맞춰 초콜릿과 찹쌀떡 만들기 수업을 했고 리본공예, 압화공예, 스트링 아트

수업이 진행되었다. 12월 22일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수업을 할 예정이다.

정선령(34세·당리동) 씨는 아이가 요즘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어서 시간이 주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뭔가 배울 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홍보지를 보고 처음으로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계속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 싶다”며 보테니컬 아트 강좌도 개설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수향(57세·감천동) 씨는 딸이 권유해 처음 학습관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집이 감천동이라서 하단까지 오기 불편하여 이용하지 못했는데 딸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니까 연말 분위기도 나고 좋다고 한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맛보기 강좌 수강생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개설하는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개성있는 이력서 만드는 평생학습계좌제

사하구 평생학습관 계좌제 기관단위 평가 인정

백세 시대 나만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삶의 일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독특한 이력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란 생각이 든다. ‘평생학습계좌제’는 이러한 개성있는 이력서를 만드는 데 적합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평생학습계좌제는 2008년도에 시작된 제도로 현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개인의 학습이력을 등록, 누적할 수 있는 학력이력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평생학습계좌제를 활용하려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학습계좌를 직접 개설해야 한다. 학력과 근무경력, 연구경력 그리고 자격증(해외자격)을 기록한다. 특기사항으로 저서, 특허, 봉사활동도 포함되고, 특히 평생학습관에서 수료한 이력을 남길 수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모든 이력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강 이력을 담을 수 있다. 개인의 학습계좌에 등록된 평생학습이력은 진학과 직업정보 획득, 취·창업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20대 취업 준비생은 평생학습계좌제로 학습이력을 모두 담은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제출해서 취업에 성공한 예가 있다. 그 후로도 사내에



서 받는 교육을 꾸준히 학습이력에 등록하고 있다. 40대 군인은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평생학습계좌제를 활용했으며 부대원들에게도 취득한 자격증을 쉽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홍보했다.

사하구의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계좌제로 인정 받은 기관이다. 사하구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했다. 내년부터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강좌는 평생학습계좌제의 학습이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강좌를 들은 구민이라면 자신의 이력을 점검하고 새로운 이력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다.

문의 : 사이트(<http://www.all.go.kr>)
사하구 평생학습과 220-4807

김미연 평생학습 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